

# 研究프로그램 方法論에 의한 新리카아도派 經濟理論의 再構成

宋 鉉 浩\*

<目 次>	
I.	머리말
II.	新리카아도派 經濟理論의 基本構造
III.	MSRP에 의한 再構成
IV.	新리카아도派 經濟理論의 評價
V.	맺는말
	參考文獻

## I. 머 리 말

소위 Cambridge 자본논쟁의 부분적인 산물로서 고전파—마르크스 전통에 따르는 경제이론에 대한 관심이 재차 강하게 부활되었다. 이 새로운 움직임은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대한 개념적 비판을 통해서 그것의 非整合性을 증명하려는 시도였다. 자본역전, 기술재전환 등의 개념적 현상이 그것을 대표한다.

그러나 비록 이 비판이 신고전파 경제이론 중 어떤 특정한 所論—Austrian 자본·이자이론이나 집계자본의 한계생산성이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리적 파괴력을 가졌지만, 그것은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근본적인 토대로서 간주되는 Arrow-Debreu 流의 異時一般均衡理論<sup>1)</sup>(이하 GE이론으로 약칭함)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sup>2)</sup>

따라서, 또 하나의 방향이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GE이론에

\*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이 論文은 韓國經濟學會의 「1984年度 定期學術大會」(1985.2.22, 서울)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K.J. Arrow and G. Debreu(1954), G. Debreu(1959) 및 K.J. Arrow and F.H. Hahn(1971).

2) C.J. Bliss(1975) 및 M. Blaug(1975).

필적하는 대체적인 경제이론의 발견 내지 구성의 노력이다. 이 노력 중에서 하나의 흐름이 Sraffian 체제를 기본분석틀로 하는 신리카아도派 경제이론(이하 NR 이론으로 약칭함)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후기경험주의에 있어서 대표적 방법론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Lakatosian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방법론(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 MSRP)을 이용해서 NR 이론이 과연 GE 이론에 대한 대체적 이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가를 평가하려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연구절차를 밟아, 우리의 주요한 주제들을 논증하려고 시도한다.

첫째, NR 이론에서 제출된 주장들 중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을 추출하여 방법론적 재구성(methodological reconstruction)<sup>3)</sup>에서 고려할 요소세트로부터 제거시킨다.

둘째, 이렇게 제거한 후 남은 NR 이론의 제요소를 MSRP에 따라서 재구성한다. 셋째, 재구성된 이론적 제요소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을 지적함으로써 지금의 NR 이론이 그것을 충족시키는 정도와 가능성을 검토한다.

비째,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서 NR 이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여기에서 이 논문의 연구범위를 분명하게 밝혀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NR 이론의 평가에 있어서 어떤 다른 종류의 경제이론에 준거하는 경우에 그것은 오직 GE 이론뿐이며, 新케인즈派 또는 마르크스派의 경제이론은 전혀 고려 밖에 있다.

## II. 신리카아도와 경제이론의 기본구조

먼저 신리카아도파란 Sraffian 체제를, 고전파—마르크스 전통의 剩餘接近法(surplus approach)의 현대적인 결정판이며, 계속적인 이론발전에 있어서 기초개념틀로서 보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을 지칭한다. 그들은 상품의 교환가치의 결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Sraffian 체제를 노동가치론의 제한제에 구속받지 않는 혁신적인 진보로서 여기며, 심지어 A. Roncaglia 같은 학자는 현대경제학사에서 'Sraffa 혁명'이 일어났다고까지 공언한다.<sup>4)</sup>

물론 어떤 경제학자가 신리카아도파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비슷한 구분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늘 명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리카아도파를 독립적인 학

3) 이것은 일정한 역사를 갖는 이론체를 다시 새롭게 창출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과학철학적 방법론에 맞추어 재정식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현대과학철학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4) A. Roncaglia(1978), p. xi.

파로서 보는 것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론적 근거가 있다. 한편에서 그들은 상품 교환가치의 설명에 있어서 확고하게 노동가치론을 기각하며, 때로는 Marxian 착취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르크스파와 구별된다. 다른 한편에서, 그들은 모형의 변수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유효수요의 원리에 의존하지 않고, 불확실성의 문제는 자본주의경제의 장기적 경향법칙을 찾는 데 거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신케인즈파와 구별된다.

이제 NR 이론의 기본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NR 이론을 본질적으로 특징지우는 세 기본적인 시각이 있다.

### 1. 剩餘接近法

분석의 초점은 자본주의경제에서 어떻게 사회적 잉여가 창출되고, 이윤·이자 및 지대로서 특정한 사회계급에 專有되어, 자본축적과 사치적 소비간에 배분되는가에 두어진다. 잉여는 총산출벡터에서 필요소비벡터를 초과하는 나머지, 즉 사회적으로 가치분적인 산출벡터로서 정의된다. 필요소비에는 다시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생산수단을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부분 이외에 노동인구의 생계에 충당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잉여와 필요소비는 모두 物的 產出벡터로서 표현된다. 생계는 당해 사회에서 당시에 행해지는 사회문화적 제요인에 의해서 정해지는 외생 변수로서 취급된다. 그리고 잉여는 주로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기초하는, 사회계급들간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생산수단 소유계급에게 전유된다고 상정된다.

### 2. 方法論의 全體論(methodological wholism)<sup>5)</sup>

NR 이론은 경제적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개별경제주체의 속성(선호 등)에 의존하는 것을 기각하고, 그 대신에 사회적 범주(계급 등)와, 그것들간의 법칙적 관계에 의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별행동주체는 단지 사회구조<sup>6)</sup>를 이루는, 인간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지위와 역할의 기능적 擔持者(support 또는 bearer)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설명의 인과성은 언제나 사회구조에서 개인으로 흐르며, 그 逆은 인정되지 않는다.

5) 方法論의 個體論과 全體論에 관해서는 李漢龜(1980) 및 철학자들간의 논쟁을 수록한 論文選集인 J. O'Neill(1973)을 참고하기 바람.

6) 사회구조란 일정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체계에서 구성요소들의 상대적 위치와 그것들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총체로서 이해된다. 구조개념의 철학적 측면에 관해서는 E.Nagel(1961) 및 R. Bhaskar(1979)을, 그리고 사회이론적 측면에 관해서는 A. Giddens(1979)를 참고하기 바람.

## 3. 長期方法(long period method)

장기상태는 경쟁적인 자원의 이동을 통해서 균등임금·균등이윤율 및 균등가격이 행해지는 최종상태(terminal state)로서 정의된다. 자본주의경제는 이 상태에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것의 경제적 重心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이 중심에로의 수렴경향을 지배하는 諸力은 자본주의경제의 운동법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측면을 이룬다고 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단기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비본질적인 원인으로서 따라서,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간주된다.

NR 이론에 따르면, 이상의 세 가지가 고전파—마르크스 전통의 기본적인 시각을 이룬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NR 이론이 구성되기 위한 개념들이며 그 자체로 구체적인 설명력을 갖는 이론은 아니다. NR 이론은 이 시각에 부합되는 연구지침에 따라 보조적 가설들을 쌓아올림으로써 구성된다. 이것이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구분을 이용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외생변수

- ① 기술
- ② 생계임금<sup>7)</sup>
- ③ 생산되어야 할 산출량벡터

## (2) 내생변수

- ① 균등이윤율
- ② 상품의 균등교환가치

생계임금과 이윤율이 互換될 수도 있다. 실제로 Sraffa 자신은 이윤율을 외생변수로 취급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sup>8)</sup> 그 경우 Sraffian 체제는 소위 L. L. Pasinetti의 장기이윤율정리<sup>9)</sup>와 결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임금과 이윤율 중 어느 하나는 주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외생변수로서 취급된다는 점이다. 그러면, 나머지 한 소득분배변수는 殘餘分으로서 결정된다.

(1)에서 산출량벡터가 所與로서 취급된다는 것은 최종수요벡터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함축하며, 이것은 다시 최종수요가 상대가격과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

7) 임금이 생계수준을 초과하도록 그렇게 이론체제가 구성될 수도 있다. 즉,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단계교섭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잉여의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도 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우리의 주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우리는 단순화하여 생계임금을 가정한다.

8) P. Sraffa(1960), p. 33.

9) L.L. Pasinetti(1974), 제5·6장 참조.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NR 이론에서 최종수요백터는 사회계급의 생활유형을 결정하는 사회문화적 제요인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다.

다음에 기술에 관해서는 투입물들간의 대체성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Sraffian 체계에서는 일단 그것의 제가정이 받아들여지면, 한편에서 잉여율과 최대가능이윤율간에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임금과 이윤율간에 一義的인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임금이 주어지면 존재하는 여러 기술 중에서 극대이윤율을 얻게하는 기술이 선택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장기상태’에 분석이 국한되는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가정이 Sraffian 체계의 성립을 위해서 암묵적인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sup>10)</sup>

(1)의 외생변수들이 주어지면, (2)의 내생변수들은 일반균형의 연립방정식체계에 의하여 동시적으로 결정된다. 어쨌든 NR 이론가들은 이 Sraffian 체계에 의해서 신고전파의 主觀主義的 理論을 극복하는 새로운 경제이론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sup>11)</sup> 현대경제이론의 역사에 新紀元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하였다.

### Ⅲ. MSRP 에 의한 재구성

#### 1. MSRP 의 특징

NR 이론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용하는 MSRP 는 헝가리 태생으로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Popperian 과학 및 수학의 철학자로서 활동하다가 1974년에 他界한 Imre Lakatos에 의해서 1970년에 제출되었다. 이 MSRP 는 Lakatos 死後에도 Popperian 과학철학자들을 중심으로 계속 연구되고 있다.<sup>12)</sup> 어쨌든 MSRP 는 T.S. Kuhn의 패러다임 개념이 갖는 과학철학적 제함축을 Popperian 과학철학=비판적 합리주의의 전통 속에 통합시키고 있는 후기경험주의에 있어서 대표적 방법론으로서 손꼽히고 있다.

MSRP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후기경험주의의 본질적인 두 특질을 간략하

10) P. Sraffa(1960), 서문, p.v. “수요와 공급의 균형의 텀으로써 생각하는 데 습관화된 사람은 누구나 나의 논의가 모든 산업에서의 수확불변이라는 암묵적 가정에 의거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가정은 전혀 두어져 있지 않다.”

11) Sraffa 자신 상계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관점은 Adam Smith에서 Ricardo까지의 옛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관점인데, ‘한계’ 분석의 到來 이래로 침잠되어 망각되어 왔다.” p.v.

12)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G. Radnitzky and G. Andersson(1978)에 수록되어 있다.

게나마 서술해 두는 것이 MSRP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이론의 인식적 지위(진리값)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경험은 여전히 불가결한 본원적 요소이지만, 이제 경험은 이론의 인식적 지위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즉 논리실증주의<sup>13)</sup>가 확립하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이론의 인식적 盤石으로서의 경험은 개념이나 이론과 독립적으로 순전히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논리실증주의를 비롯한 실증주의<sup>14)</sup>는 근본적으로 이 불가능성에서 좌초하였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인 개념과 이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과학철학적 관심은 확실한, 절대적인 진리의 탐색이라는 야망에 찬 작업에서 과학적 지식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더 온건한 목표로 옮겨졌다.

둘째, 첫번째 특질과 관련해서 이론은 단일의 가설적 덩어리로서보다는 여러 연결된 진술들의 다발 또는 조직망(network)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임의의 이론은 그것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론들과 함께 더 큰 이론체(body of theories)의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한 이론에서 중심적인 가설이 다른 이론에서는 보조적 가설로서 사용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光學理論에서는 중심적인 가설이 天體物理學에서는 보조적 관찰이론으로서 이용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론의 지위는 연구맥락이 고려되는 경우에만 정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맥락이 주어질 때, 임의의 이론체는 각 이론의 설명력(일반성)을 기준으로 해서 위계서열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이론은 물리학이론으로부터 연역가능하므로, 후자가 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론으로서 간주된다.

이러한 이론관은 이론은 경험적 검증에 중대한 의의를 내포한다. 임의의 이론은 중심적인 가설 이외에도 초기 제조건, 보조적 가설 및 각종 *ceteris paribus* 단서조항이 추가됨으로써 특정한 결론이나 예측을 도출한다. 즉, 이론의 결론이나 예측은 條件言命題(conditional statement)이다. 만일 이 예측이 경험적 검증에서 反證되는 경우에 우리는 그 원인을 이론의 어떤 구성성분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어떤 경험적인 反證事例의 존재가 반드시 이론의 중심적 가설이 僞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의 개념이 도입되고, 이론의 평가에 있어서 과학자집단의 방법론적 의사결정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3) 논리실증주의에 관해서는 A.J. Ayer(1959) 및 O. Hanfling(1981)을 참고하기 바람.

14) 실증주의란 개념이나 이론독립적인 관찰언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과학철학적 입장을 지칭한다.

더우기, 어떤 이론이 다른 이론들과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경험적 반증을 통한 이론의 기각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략 1950 년대 중엽에서 시작된 후기경험주의에서는 이론의 평가는 경험적 세계 대 어떤 단일이론이라는 二者對決이 아니라, 경험적 세계 대 이론체  $T_1$  대 다른 이론체  $T_2$ 라는 三者對決의 형태에서 시행된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볼 MSRP 는 이 후기경험주의의 제특질을 방법론속에 통합시키고 있다는 최대의 장점을 갖고 있다. Kuhn 의 과학혁명론에서 패러다임의 개념이 중심적인 역할을 행했던 것처럼, Lakatos 의 MSRP 에서는 SRP 의 개념이 동일한 역할을 행한다. SRP 란 과학적 실전을 통해서 일정한 전개 과정을 밟는 일련의 이론들, 즉 理論系列을 일컫는다. 임의의 발전시점에서 그것은 다음의 세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1) 中核(hard core)

SRP 의 公理 또는 公準세트에 해당되며, 연구대상을 이루는 경험적 세계에 대한 본원적, 기저적 주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Newtonian 고전적 力學에서 Newton 의 세 역학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에 해당한다. 중핵은 당해 SRP 를 채택하는 과학자집단의 방법론적 협약(convention)에 의해서 반박불가능하거나, 맨 마지막으로 밖에는 반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2) 保護帶(protective belt)

보호대는 중핵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부분으로서, 보조적 가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황적 가설과 이론적 개념을 관찰가능한 경험적 사실과 연결시키는 소위 ‘對應律’(correspondence 또는 bridge rule)이 이에 속한다. 異變에 의해서 생성되는 긴장은 이 보호대의 수정, 대체 또는 폐기에 의해서 완화 내지 해소되도록 시도된다.

#### (3) 發見指針(heuristic)

이것에는 禁止의 發見指針(negative heuristic)과 積極的 發見指針(positive heuristic)이 있다. 전자는 중핵과 상충되는 연구방도를 금하는 방법론적 규준 세트이다.

다음에 적극적 발전지침은 중핵 속에 잠재해 있는 경험적 내용들을 개발하여 설명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연구방향을 가르키는 지침이다. 임의의 SRP 의 동태적 생명력은 바로 이 지침에 의해서 입증되게 된다. 이것은 “반박된 SRP 의 이론을 어떻게 변경시키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가, 반박된 보호대를 어떻게 수정하고 조탁하는가에 관한—부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시사 또는 힌트

의 세트로 되어 있다.<sup>15)</sup>

SRP는 증핵과 더불어 이 적극적 발견지침에 의해서 프로그램적 성격을 지니며, 이론적 발전의自律性을 보장한다.

그러면, MSRP에서 이론의 평가를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 어떤 제출된 과학적 이론이 ‘성숙과학’(mature science)에 속하는가 아니면 ‘미성숙과학’(immature science)에 속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Lakatos는 의미 있는 진술과 무의미한 진술간의 구분(논리실증주의), 과학과 형이상학간의 구분(논리경험주의)보다 “‘성숙과학’—SRP들로 이루어져 있는—과 단지 여기저기 꿰매고 기운, 시행착오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미성숙과학’간의 구분”<sup>16)</sup>을 강조한다.

둘째, 평가되는 이론이 성숙과학에 속하는 경우에 그것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 K.R. Popper에 의해서 제시된 것을 약간 조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이제 임의의 SRP, 즉 이론제열( $T_1, T_2, T_3, \dots$ )을 고려하자. 각 後行理論은 선행이론이 수반하였던 이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조적 가설을 부가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리고 각 후행이론이 적어도 선행이론의 반박되지 않은 경험적 내용만큼은 갖는다고 하자. 그러면 후행이론이 선행이론보다 더 많은 초과적인 경험적 내용을 갖는 경우, 그러한 SRP는 이론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말해진다. 또 이 초과적 내용 중 얼마가 확증되면, 그 SRP는 경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말해진다. 이 두 의미에서 SRP가 진보적이면, 그것은 진보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退步的(degenerating)이다. 그리고 진보적인 경우에 각 선행이론은 그것의 후행이론에 의해서 반증된 것으로서 간주된다.

다음에 위 논리에 비추어서 SRP들간의 선택기준을 정식화해 보자. 어떤  $SRP_1$ 은 다른  $SRP_2$ 가 다음의 제조건을 충족시키면 필요충분하게 반증된다.

①  $SRP_2$ 는  $SRP_1$ 보다 더 큰 경험적 내용을 갖는다. 즉,  $SRP_2$ 는  $SRP_1$ 에 비추어서 비개연적이거나 배제되므로차 하는 새로운 사실(novel fact)을 예측한다.

②  $SRP_2$ 는  $SRP_1$ 의 과거의 성공을 설명한다. 즉,  $SRP_1$ 의 반박되지 않은 모든 경험적 내용은  $SRP_2$ 에 포함되어 있다.

15) I. Lakatos(1970), p.135.

16) I. Lakatos(1970), p.175.

17) K.R. Popper(1963), 제10장 “Truth, Rationality, and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참조.



③ SRP<sub>2</sub>의 초과적인 경험적 내용 중 얼마는 확증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기준은 SRP 들의 내용이 집합이론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성을 갖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SRP 들이 서로 상대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험적 내용을 갖는 경우, 선택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사회과학에서의 방법론적 논의에 심각한—하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아주 당연한—제한을 두게 된다. 사회과학은 물리과학처럼 유효폐쇄체계(effective closed system)의 인위적 구성을 가능케 하는 실험실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은 개방체계에서 존재한다. 그 결과, 사회과학에서는 선행 SRP 를 대체한 후행 SRP 가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험적 내용의 축소를 수반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소위 ‘Kuhnian 損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는 고전파 이론을 대체한 한계혁명에서 Kuhnian 손실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sup>18)</sup>

이 점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한다. 어떤 경제이론의 방법론적 평가를 위해서 과학철학에 의지한다는 것이, 과학철학이 비교되는 이론들에 관한 정보가 투입되면 그 상대적 우월성을 즉각 판정해주는 일반적인 논리적 자동장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한 장치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충분한 평가를 위해서는 과학철학적 논리 이외에 사회과학에서의 실제적인 성과에 기초한 배경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학철학은 결코 실천과학의 上位理論이 아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

①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별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론계열이다.

② 과학적 지식은 반드시 직선적·누적적으로 성장하지는 않는다. 진보적인 SRP 가 퇴보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고, 퇴보적 또는 정체적이었던 SRP 가 재차 활성화될 수도 있다. SRP 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간헐적으로 진보적인 정도로도 좋다.

③ 어떤 SRP 가 반증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증사례를 갖는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그것을 대체할 우월한 SRP 가 출현해야 한다.

④ 이론의 평가는 전망적이기 보다는 회고적이다. 물론, SRP 의 적극적 발견치침이 갖는 프로그램적 잠재력에 의해서 그것의 장래성을 평가할 근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확실한 평가근거는 SRP 의 경험적 성공의 정도에 관한 과거기록일 수 밖에 없다.

⑤ 확증의 문제, 즉 언제 경험적 사실이 이론에 대해서 경험적 뒷받침을 제공하

18) R.D.C. Black et al.(1972)을 참고하기 바람.

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제시된다. 확증증거가 ㉠ 이미 알려진 것일 때에는 그것이 당해이론에 의해서 처음으로 설명되었거나 ㉡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적 내용을 갖는다.<sup>19)</sup>

## 2. 신리카아도파 주장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검토

이 절에서는 신리카아도파가 GE 이론에 비해 NR 이론에 특유한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명제들 중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추출해서 반박하려고 한다.

첫째, GE 이론은 교환과정에 집중하는 반면에, NR 이론은 생산과정에 분석초점을 둔다는 주장이 있다.<sup>20)</sup> 아마도 이 주장은 NR 이론의 잉여의 생산을 집중조명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표현한다고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유감스럽게도 GE 이론에 대한 오해에서 초래된 것이다. GE 이론의 핵심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별주체의 합리적인 행동과 그 집계적(사회적)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GE 이론이 생산과정과 교환과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GE 이론은 생산의 투입—산출관계에서 物的剩餘가 창출된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순수익의 존재에 의해서 입증된다. GE 이론이 정말로 의문시하는 것은 순수익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즉 개별주체들의 행동과 독립적으로, 그것이 왜 경제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분석적 중요성을 가져야 하는가의 점이다.

둘째, GE 이론은 주어진 희소자원의 대체적 용도들간의 배분에 집중하는 반면에 NR 이론은 경제의 사회적 재생산 조건에 역점을 둔다는 주장이 있다.<sup>21)</sup> GE 이론에서는 주어진 賦存資源에서 최종 소비재에로의 일방적인 인과적 경로만이 존재하고,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이라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표상되는 경제부문들간의 상호의존의 제관계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도 이 계열에 속한다.

우선 GE 이론에는 재생산과 부문들간의 상호의존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가로막을 요소가 없다는 것은 Leontief 모형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그러면 주어진 부존자원에서 분석이 시작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가? 이것은 단순히 그것이 이론에서 외생변수로서 취급된다는 것을 나

19) J. Worrall(1974) 참조.

20) E.J. Nell(1972), M. Hollis and E.J. Nell(1948) 및 V. Walsh and H. Gram(1983) 등.

21) M. Hollis and E.J. Nell(1948), A. Roncaglia(1978), V. Walsh and H. Gram(1983) 및 J. Eatwell(1982) 등.

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내생변수들은 외생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므로, 외생변수가 없는 이론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점에서 F.H. Hahn의 대답은 적절하다.

“왜 외생적으로 주어진 부존량에 관해 그렇게 큰 소란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어떠한 지각있는 이론도 Neanderthal 人에서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sup>22)</sup>

세째, GE 이론은 주관적인 이론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sup>23)</sup> 이 주장이 주의 깊은 논증없이도 옳은 것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순전히 錯視의 直觀에 기인한다. 분명히 GE 이론은 인간행동의 주관적 요소(선호, 기대 등)를 중심적인 이론적 구성성분으로 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GE 이론이 주관적이고, 따라서 객관적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관성을 지칭하는 名辭(term)와 그것을 포함하는 명제의 경험적 진리성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초보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경험적 세계와의 대응에 의해서 확증된 相互主觀性(inter-subjectivity)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점이 기억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상의 반박들은 GE 이론이 정말로 한 종류의 사회이론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대부분의 힘을 상실한다. 따라서, 네째로 이 점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자. 이것은 상이한 경제이론들간의 근본적인 제차이를 설명해 줄 근원적인 문제이다.<sup>24)</sup> 하지만 GE 이론은 틀림없이 한 종류의 사회이론이다.

“진정한 개인주의의 본질적 제 특성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본원적으로 사회의 이론, 인간의 사회생활을 결정하는 諸力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 개인주의의 기본적 주장은 타인들에 지향되어 있고, 그들의 기대된 행위에 의해서 인도되는 개인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가 아닌, 사회적 현상의 이해의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sup>25)</sup>(강조절 원저자). 요컨대, GE 이론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오직 사회이론으로서의 GE 이론의 개인주의적 방법론과 그로부터 결과되는 경험적 세계의 설명력과 관련해서만 올바르게 제기될 수 있다.

끝으로 GE 이론이 신고전과 집제모형에 가해진 논리적 비판을 벗어나지만, 그것은 여전히 장기상태를 특징지우는 균등이윤율의 존재와 양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22) F.H. Hahn(1981), p.127.

23) M. Hollis and E.J. Nell(1948), E.J. Nell(1972) 및 A. Roncaglia(1978) 등.

24) 이 주제를 얼마간 체계있게 논의하는 것조차 좀처럼 쉽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다만 약간이나마 뚜렷한 언급에 관해서는 이하의 本文을 참조하기 바람.

25) F.A. Von Hayek(1948), p.6.

있다.<sup>26)</sup> 그러나, 이 주장은 NR 이론의 균등성원리를 당연히 옳은 가정으로서 전제하는 것에 기인한다.<sup>27)</sup> 정말로 GE 이론에 따르면, 상품들간에 自己利率(own rate of interest)이 일반적으로는 균등하지 않다. 하지만 임의의 상품을 가치척도재(numeraire)로 선정하여 그것의 텀으로써 측정할 때에는 모든 투자간의 순수익율은 균등하게 된다. 우리가 경쟁적 GE 이론에서와 같이 완전경쟁, 극대화행동, 그리고 불확실성—현재 및 미래 모두에 있어서의—의 不在를 가정하면, 일반균형의 정의에 의해서 위와 다른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

이상의 신리카아도파의 주장을 기각시키고, NR 이론을 방법론적으로 재구성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한다.

### 3. 신리카아도파 경제이론의 재구성

#### (1) 中核

‘사회적 잉여가 일정한 경제사회에서 창출되고 사회구성원들간에 분배되어 이용되는 양식이 그곳에서의 경제활동과 경제과정의 성격 및 내용을 이해하는 관건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탐구노력은 全體論(wholism)의 시각에서 올바르게 시행된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개인을 초월하는 어떤 실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잉여의 존재는 암묵적으로 사회계급들의 분화를 내포하고 있다. 자본주의경제에서 잉여의 주요한 專有者는 자본가계급이며, 이 계급이 전유한 잉여가 자본축적과 사치적 소비간에 배분되는 방식이 자본주의경제의 동태적 운동과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 이 과정에는 인간사회 대 자연간의 상호작용도 수반되며, 그것은 기술상태로 표현된다.

#### (2) 적극적 발견지침

① ‘사회적 잉여의 생산, 전유방식에 따라 사회계급을 분류하라.’

② ‘개인의 행동유형은 그가 속하는 사회계급의 속성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간주하라.’

따라서, 인간행동성(human agency)의 문제는 사회계급의 속성을 파악하는 문제로 환원되고, 개인은 단지 자신이 속하는 계급의 사회적 위치와 기능의 담지자로서 취급된다.

③ ‘경제주체의 유형을 사회계급에 대응해서 구분하여, 그들간의 상호작용의 판

26) J. Eatwell and E.J. Nell(1976).

27) 본문 제Ⅳ장 참조.

계를 분석하라.’

따라서, 자본주의경제의 경우 GE 이론에서는 한 단일범주로 되어 있는 가계는 자본가가계, 노동자가계 및 지주가계 등으로 분류된다.

④ ‘어떤 경제의 본질적인 운동법칙을 알기 위해서 경향법칙(tendency law)이 관찰되는 장기상태의 분석에 주력하라.’

⑤ ‘잉여의 분배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계급들간의 갈등 또는 연합을 표현하므로, 그것을 사회정치적 지배력(sociopolitical power)에 의해서 결정되는 외생변수로서 취급하라.’

이것은 경제이론이 내재적으로 자율적인 사회과학의 분과일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한다.

⑥ ‘임의의 경제에서 재생산의 제조건이 확보되는, 아니면 확보되지 못하는 원인과 그 작동메카니즘을 탐구하라.’

이상의 여섯 가지 발전지침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중첩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누는 것이 NR 이론의 특질을 파악하는 데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 아이디어들이 Sraffian 체계의 배경전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IV. 신리카아도파 경제이론의 평가

이 절에서는 NR 이론의 중핵에서도 핵심적인 사회적 잉여의 개념을 신리카아도파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단순히 전제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현재의 상태에서는 NR 이론이 본격적인 발전과정에 들어서기 어려우며, 따라서 성숙과학으로서 간주되기에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다.

첫째, NR 이론에 따라 이해되는 사회적 잉여의 개념이 확실한 사회이론적 근거를 갖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음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검토될 수 있다.

① 잉여는 총산출량벡터에서 생산수단의 대체용벡터와 생계소비재벡터를 차감함으로써 얻어진다.<sup>28)</sup> 따라서, 잉여의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계소비재벡터가 선행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벡터가 사회문화적 제요인에 의해서 정해지는 외생변수라고 보는 가정만으로는 별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요인들이 의미있게 추출되어서 소비

28) 기술변화와 新商品의 출현으로 인한 잉여측정의 복잡성의 문제는 무시해 두기로 한다.

생활유형을 전체론적으로 결정하는 메카니즘이 구명되지 않으면, 선택되는 임의의 생활수준과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이 벡터를 나타낸다고 항상 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전히 임시변통적 조치(ad-hockery)의 문제가 남아 있다. 어쨌든 신리카아도파 경제학자 중 누구도 생계의 결정이론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단지 어느 사회에나 합당하게 생계라고 간주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합당하게’라는 말은 엄밀한 개념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엇이 정당한 사회질서인가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 이 문제의 근원적인 중요성은 정치철학에서 핵심적인 이론적 문제가 바로 ‘사회질서’의 개념을 둘러싼 그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② 설령 생계벡터가 조작적으로 의미있게 정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왜 잉여 개념이 신리카아도파가 정의하는 식으로만 생각되어야 하는지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예를 들어, 왜 GE이론에서와 같이 임의의 생산요소가 수취하는 실질소득이 그것이 생산에 기여한 몫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잉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가?

물론, 자본주의 경제에는 순전히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그 소유자에게 전유되는 소득의 제법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행해지는 사회제도적 규칙의 문제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잉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의도는 여기에서, 가능한 잉여의 개념정의들 중에서 어느 특정한 것을 옹호하는 데 있지 않다. 더우기, 지배력이 아무런 분석적 역할도 행하지 않는 지금의 GE이론을 정당화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잉여의 개념은 사회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지배하는 사회적 규칙체계의 문제이지, 잉여가 그 규칙체계에 선행해서 어떤 물적 형태로 존재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의 생산, 분배 및 이용 양식이 그 경제의 성격과 발전유형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요컨대, 잉여의 개념은 사회적 규칙체계와 독립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텀으로써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게 정의된 잉여개념에 어떤 개인이 동의하는가 않는가는 크게 가치판단적, 따라서 정치적인 문제에 속한다.

아마도 NR이론은 어떤 사회적 규칙체계에 의해서 생계벡터가 정해지고, 그런 다음에 잉여의 처분방식에 관한 집합적(collective) 의사결정이 행해지는 그러한 실재적 또는 가상적 경제체제에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보면, 한 걸음 더

29) J.L. Wiser(1974)을 참고하기 바람.

나아가서 NR 이론이 경험적 이론인지 규범적인 사회조직구성원리의 설계이론인지에 관해서조차 의문이 생긴다. 어쨌든, 신리카아도파가 가정하는 제조건하에서 자본주의경제가 방금 말한 경제체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상의 논의는 잉여개념은 지배력개념과 결부해서만 가장 성과있게 논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 같이 보인다.

③ 사회적 잉여라고 할 때, ‘사회적’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가 있다. 먼저 ‘사회적’은 ‘개인적’과 대칭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점이 기억되어야 한다. 개인은 언제나 사회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적’에 대칭되는 올바른 용어는 ‘집합적’이다. 또한 ‘사회적’=‘집단적’도 아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행동주체—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들간의 상호작용의 존재와 그 결과 생성되는 산물(제도, 문화, 집합적 행동, 조직, 전통, 관습 등)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더우기 ‘사회’는 목적이나 意識을 갖지 않으며, 오직 인간=개인만이 그것들을 갖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관점에서 잉여가 사회적인가? 관찰되는 특정한 개별 행동주체, 또는 특정한 사회집단—집단의식이 의미있게 정의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아니면 연구하는 학자 중 누구의 관점에서 사회적인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를 그 자체의 목적과 내재적인 운동논리를 갖는 초개인적인 독립적 실체로서 本體化(hypostatize)시키는 전체주의적 목적론(wholistic teleology)에 빠질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 개별행동주체의 행동은 오직 그 행동이 일어나는 사회구조의 맥락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사회구조 또한 오직 인간행동성을 통해서만 존재하고 유지되며 또 변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本質論(essentialism)에 빠지지 않고서는 사회분석에 유용한 사회전체의 잉여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론에 반대한다.<sup>30)</sup>

둘째, 적극적 발견지침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미해결의 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발견지침 ②(제 3 장 제 2 절)는 기계론적 사회관으로 이끌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GE 이론과 관련해서 한가지 근본적인 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기로 한다. 그것은 Sraffian 체제에서 당연시되는 것처럼 잉여율과 이윤율간의 관계가 확실한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Sraffian 체제에서는 잉여율=최대가능이윤율이라는 명제가 확립되어 있다. 그

30) 만일 동일한 연구대상에 관해서 상이한 종류의 이론들이 서로 다른 본질들을 옹호한다고 가정하면, 이론들간의 평가와 선택은 오로지 군중심리와 집단지배력(group power)의 문제로 환원되어 버릴 것이다. 결국 과학적 논의는 궁극적인 가치들의 대결장이 되고, 과학을 종교로부터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려나, M.C. Howard 는 이 명제가 균등가격의 公準 덕분에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보였다.<sup>31)</sup> 그러면 Howard 의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이제 '1 상품경제'를 가정하고, 이 상품을 곡물이라 하자. 곡물을 생산하는 기술은 아래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a_{11} + f_1 \rightarrow b_{11}; a_{11} > b_{11}^{32)}$$

단,  $a_{11}$ 과  $f_1$ 은 각각 곡물산출량  $b_{11}$ 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곡물투입량과 노동투입량을 나타낸다.

만일 균등가격의 공준에 따라 투입물로서의 곡물과 산출물로서의 곡물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임금이 0이라 하더라도 잉여가 陰이므로 이윤율도 음이다. 그러나 일단 균등가격의 공준이 제거되면, 이윤율  $r$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r = (b_{11}/a_{11}) \times (p_2/p_1) - 1$$

단,  $p_1$ 과  $p_2$ 는 각각 투입물 및 산출물로서의 곡물의 가격이다.

이 경우 잉여가 음이라는 사실이 이윤율의 부호에 관해서 선형적으로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 일반적으로,  $r$ 은  $p_2/p_1$ 에 의존한다. 따라서 陽의 잉여가 양의 이윤율을 위한 필요조건<sup>33)</sup>이 아니며 Sraffian 체제에서와 같이 잉여율과 최대 가능 이윤율간에는 一義的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점을 GE 이론과 비교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GE 이론에서는 상품은 그것의 물적 성질에 의해서 뿐 아니라, 또한 공간적 입지 그리고 거래(인도)시기에 의해서도 구분된다. 따라서,  $t$ 를 시간을 나타내는 아랫글자라 할 때 일반적으로  $P_t \neq p_{t+1}$ 이다. 즉, 생산개시 전  $t$ 기에서와 생산완료 후  $(t+1)$ 기에서 물적 성질과 입지에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서로 다를 것이다. 그리고 GE 이론의 제가정하에서는 경제적 잉여는 발생하지 않지만, 각 자원의 용도에서의 순수익율은 균등하다

그렇다면, 왜 균등가격의 공준이 성립해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는가? 어떠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메카니즘이 그러한 공준의 타당성을 확립하는가? 만일 分權의 의사결정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배적이라면—NR 이론이 동의하고 강조하듯이—왜 수요조건이 상품의 교환가치의 결정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행하지 않는다고 주장되는가? NR 이론은 이들 의문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답하는 대신에, 단순히 장기상태는 균등성의 원리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진술만을 되풀이 하였다.<sup>34)</sup>

31) M.C. Howard(1983) pp.151~52.

32) Howard 가 명시했듯이, 이 예의 구성은 분명히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이것의 목적은 NR 이론이 논리적으로 균등가격의 공준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이는 데 있으므로, 이 제약은 결론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3) 비슷한 反例를 통해서 또한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

34) P. Garegnani(1976), J. Eatwell(1982).



## V. 맺 는 말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NR 이론은 GE 이론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사회적 범주, 특히 사회계급들간의 갈등, 사회적 지배력, 기술과 사회제도적 요인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그것은 경제이론에서 제도적(또는 구조적) 접근법의 가능성을 보이려고 시도한다. 경제학의 위기가 빈번하게 말해지고 있는 지금, NR 이론의 방법론적 토대를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은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러나, 이 의도된 시각이 과연 발전의 잠재성을 갖는 충분한 SRP를 형성하는데 성공하고 있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 논문은 NR 이론을 Lakatosian MSRP에 따라 재구성하고 검토함으로써 이 물음에 답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의 결론적인 판정은 이론의 중핵과 적극적 발전지침이 기본적인 개념적 제난점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NR 이론을 본격적인 이론적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SRP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Roncaglia처럼 Sraffa 혁명을 운위하는 것은 더욱 더 무리한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NR 이론의 사상이 그 원래의 목표를 성취할 것같은 연구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사회구조의 연구와 인간행동의 분석은 원리상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인간행동 접근법과 제도적 접근법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아, 서로 상대방의 방법론적 原罪를 비난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시작에서부터 혼동과 왜곡을 초래할 뿐이다.

A. Giddens가 사회학이론의 주요흐름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 기초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듯이, 사회적 현상의 발생·유지 및 변화는 사회구조와 인간행동성이라는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이중적 분석축을 중심으로 탐구되어야 한다.<sup>35)</sup>

GE 이론은 인간행동 접근법을 취한다. 따라서 GE 이론에서 이론구성의 개념적 제요소는 인간행동의 목적, 가용수단, 상황적 선행조건, 행동양식 및 인간행동의 개별적 또는 집계적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SRP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전체로서의 이론에 준거해서 행해져야 한다.<sup>36)</sup> 주요개념과 같이 GE 이론의 한 파생적 구성요소를 전체의 맥락에서부터 떼어내서 평가하는

35) A. Giddens(1976, 1979),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다는 말이 사회구조와 인간행동성의 더 깊은 인과적 기저메카니즘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36) 이 점은 앞으로 나올 필자의 논문 “新古典派 經濟理論에 관한 方法論의 研究”에서 더 상세하게 논증할 것이다.

것은 誤導된 분석결과와 함께 그릇된 신념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반면에, NR 이론은 제도적 접근법을 취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것의 핵심개념인 사회적 잉여의 문제는 사회적 지배력의 문제에 준거함으로써 가장 잘 분석될 수 있고 성과있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것 같이 보인다.<sup>37)</sup> 결국, 사회질서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과학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어려운 탐구대상이며, 그것은 단순히 경험적 사실로서 당연시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론화가 추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한 마디로, 인간행동 접근법이나 제도적 접근법 중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틀리다기 보다 오히려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二分法的 사고방식은 결국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이론적 가능성을 크게 제약할 것이다. 특히 NR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사용하는 전체론적 개념들은 분석의 초점이 되는 사회적 집단의 행동메카니즘이 해명될 때 비로소 충분한 이론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의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각종 자원, 조직화의 정도, 집단 연대성 그리고 리더쉽 등의 集合의 行動(collective action)의 제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李漢龜, “社會科學에 있어서 方法論的 個體論과 全體論,” 韓國社會科學研究所編, 『社會科學의 哲學』, 民音社, 1980 所收.
2. M. Allingham, *Value*, Macmillan, 1983.
3. K.J. Arrow and G. Debreu, “Existence of Equilibrium for a Competitive Economy,” *Econometrica*, Vol. 22, 1954.
4. K.J. Arrow and F.H. Hahn, *General Competitive Analysis*, Oliver and Boyd, 1971.
5. A.J. Ayer, ed., *Logical Positivism*, Free Press, 1959.
6. D. Bell and I. Kristol, eds., *Crisis in Economic Theory*, Basic Books, 1981.
7. R. Bhaskar,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A Philosophical Critique of the Contemporary Human Sciences*, Harvester Press, 1979.
8. R.D.C. Black et al., *The Marginal Revolution in Economics: Interpr-*

37) 지배력의 개념과 이론적 제문제에 관해서는 G.E. Lenski(1966), M.E. Olsen(1970) 및 R. Martin(1977) 등을 참고하기 바람.

- etation and Evaluation*, Duke Univ. Press, 1972.
9. R. Blackburn, ed., *Ideology in Social Science: Readings in Critical Social Theory*, Fontana, 1972.
10. M. Blaug, *The Cambridge Revolution: Success or Failure? : A Critical Analysis of Cambridge Theories of Value and Distribution*, revised ed.,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75.
11. C. J. Bliss, *Capital Theory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North-Holland, 1975.
12. I. Bradley and M. C. Howard, eds., *Classical and Marxian Political Economy: Essays in Honour of Ronald Meek*, Macmillan, 1982.
13. —,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and Marxian Political Economy," in (12).
14. M. Brown, K. Sato and P. Zarembka, eds., *Essays in Modern Capital Theory*, North-Holland, 1976.
15. B. Caldwell, *Beyond Positivism: Economic Method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George Allen & Unwin, 1982.
16. P. Calvert, *The Concept of Class: A Historical Introduction*, Hutchinson, 1982.
17. F.C. Carleton, "Limitations of the Equilibrium Method in Economics," Ph.D. Dissertation, Washington State Univ., 1975.
18. R.S. Cohen and M.W. Wartofsky, eds.,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Boston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Vol. 71, D. Reidel, 1983.
19. G. Debreu, *Theory of Value: An Axiomatic Analysis of Economic Equilibrium*, Yale Univ. Press, 1959.
20. J. Eatwell, "Competition," in (12).
21. J. Eatwell and E.J. Nell, "The rate of profit in intertemporal equilibrium," in (14).
22. P. Garegnani, "On a Change in the Notion of Equilibrium in Recent Work on Value and Distribution," in (14).
23. A. Giddens, *New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Basic Books, 1976.
24. —,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Action,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Social Theor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9.
25. F.H. Hahn, "General Equilibrium Theory," in (6).
26. O. Hanfling, ed., *Essential Readings in Logical Positivism*, Blackwell, 1981.
27. F.A. von Hayek, "Individualism—True and False," in *Individualism*

- and Economic Order*, Gateway Editions, 1948.
28. M. Hollis and E. J. Nell, *Rational Economic Man: A Philosophical Critique of Neoclassical Economics*, Cambridge Univ. Press, 1975.
29. M.C. Howard, *Modern Theories of Income Distribution*, Macmillan, 1979.
30. —, *Profits in Economic Theory*, Macmillan, 1983.
31. J. Jalladeau, "Research Program versus Paradigm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12, 1978.
32. S.R. Krupp, ed., *The Structure of Economic Science: Essays on Methodology*, Prentice-Hall, 1966.
33. T.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2nd ed.), Univ. of Chicago Press, 1970.
34. I. Lakatos,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n (34).
35. I. Lakatos and A.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Univ. Press, 1970.
36. S.J. Latsis, ed., *Method and Appraisal in Economics*, Cambridge Univ. Press, 1976.
37. G.E. Lenski, *Power and Privilege: A Theory of Social Stratification*, McGraw-Hill, 1966.
38. R. Martin, *The Sociology of Power*, Routledge & Kegan Paul, 1977.
39. R.L. Meek, *Smith, Marx and After*, Chapman and Hall, 1977.
40. E. Nagel, *The Structure of Science: Problems in the Logic of Scientific Explanation*, Routledge & Kegan Paul, 1961.
41. E.J. Nell, "The Revival of Political Economy," in (9).
42. M.E. Olsen, ed., *Power in Societies*, Macmillan, 1970.
43. O'Neill, ed., *Mod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Heinemann, 1973.
44. L.L. Pasinetti,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Essays in Economic Theory*, Cambridge Univ. Press, 1974.
45. K.R. Poppe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Routledge & Kegan Paul, 1963.
46. G. Radnitzky and G. Andersson, eds., *Progress and Rationality in Science*, Boston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Vol. 65, D. Reidel, 1978.
47. A. Roncaglia, *Sraffa and the Theory of Prices*, John Wiley & Sons, 1978.
48. P. Sraffa,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Prelude to a Critique of Economic Theory*, Cambridge Univ. Press, 1960.

49. V. Walsh and H. Gram, *Classical and Neoclassical Theories of General Equilibrium: Historical Origins and Mathematical Structure*, Oxford Univ. Press, 1980.
50. J.L. Wiser, *Political Philosophy: a History of the Search for Order*, Prentice-Hall, 1983.
51. J. Worrall, "The Ways in which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Improves on Popper's Methodology," in (44).

## A Methodological Reformulation of Neo-Ricardian Economic Theory in Terms of Lakatosian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Hyun-Ho Song

A group of economists called Neo-Ricardian has made the claim that they are now in a position to provide an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 capable of competing with Neoclassical economics. In addition, they have asserted that their approach is in full line with the Classical-Marxian tradition, with some difficulties in the latter corrected.

As it stands, the Neo-Ricardian position is distinguishable from the orthodox Marxist view, in that the former explicitly rejects any version of labor theory of value and its exploitation implication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opposed to the Neo-Keynesian standpoint which takes the irreducible uncertainty in economic life as its crucial explanatory variable. Neo-Ricardian are most interested in the long run economic positions, and they regard the element of uncertainty as relevant only to the transitory short run states.

In this paper, we attempt to reformulate the characteristic structure of Neo-Ricardian theory to see whether their claims could be reasonably justified. For this purpose, we employ a philosophical methodology (MSRP) developed by Imre Lakatos as an appropriate logical framework of reformulation. MSRP provides us with the means for identifying the structural components of any scientific theory.

After completing a reformulation of Neo-Ricardian theory, we enter into the stage of appraising its theoretical adequacy. Our general point is that while it may be considered one of the conceivable prospective ways in

which the dominance of economic thinking by the Neoclassical orthodoxy could be challenged, it does not seem to equip itself with any powerful positive heuristic: it is one thing to claim that the major events observed to be occurring in the real capitalist economies must be approached from such and such viewpoint; but, it is quite another thing to advance persuasive grounds why that is intelligibly so. It need be demonstrated that the viewpoint adopted is capable of creating real hypotheses with adequate explanatory and predictive power.

To present a synoptical outline of our analytical results, the following three points are particularly important, all of which show that the central Neo-Ricardian concepts have now very problematical status and are not cohesively articulated.

First, for all its theoretical importance attached to it, the Neo-Ricardian concept of social surplus is not rendered intelligible in any satisfactory way. We are merely given a set of unjustified assumptions concerning necessary subsistence, physical maximum output and total final demand, which together make the concept of surplus something like a definitive rather than explanatory term. But in order to go beyond the almost trivial point that every human being lives a life which is more or less constrained by his social set-up, the Neo-Ricardian reference to socio-political factors must be fully articulated so as to show their real modes of operation for the emergence of surplus phenomena. Before this is done, we remain to be unconvinced by their appeal to vague sociological categories.

Second, even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surplus and profit which Neo-Ricardians take to be firmly established through innovative work of P.Sraffa does not in fact securely hold. As M.C. Howard has shown, the proof of it is critically dependent upon the Neo-Ricardian uniformity principle. This leads us to our last remark. That is to say, in its turn the uniformity principle stating that the long run position is to be characterized by uniform prices, uniform rate of profit and uniform wage rate has no compelling theoretical reason. In terms of Neoclas-

sical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it is at least possible to conceive to the contrary. So it is just one more member of the Neo-Ricardian set of stipulative codes.

In sum, all these points force upon us the impression that the camp of Neo-Ricardians is not yet sufficiently prepared to make headway toward consistent and systematic evolutionary path of research programme. This does not imply that their potential perspective is without any merit. But we suggest that for its creative problemshift its holistic concepts need be related to the real mechanisms of action by social groups under consideration. This theoretical move would involve the investigation of such matters as power resources, the cohesive degree of organization, group solidarity, and the pattern of leadership which would be mobilized by the members of any social group who find themselves in similar situation and striving toward certain common goals. It amounts to saying that Neo-Ricardian perspective may well be developed by incorporating some kind of analysis of social power exercised through collective action.